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연속기도에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세족예배 드립니다. 성찬식 순서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정예배 안내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7시부터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26일(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 1시30분에 연령별사랑방 연합 찬양모임이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2시에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4시에 사랑방공동체 학교 후원이사회 전체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홍삼성 장로 · 임명숙 권사 가정 (감사)
이창윤 집사 · 양일자 선생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5 호

2025년 4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고난주간, 세상 속 삶의 다이어트

사순절의 끄트머리인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 푸른꿈사랑방에서는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묵상할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덜어내고 채울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늘리겠다, 먹는 것을 줄이겠다, 효도를 하겠다,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겠다 등 다양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혹여나 도중에 실패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나가길 다짐했습니다. 그중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푸른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팬츠를 것입니다. 부활절까지 이르는 과정을 함께 느끼고 목격하며, 다음에는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고난(苦難)이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고난을 겪는다는 말은 즉 경제적으로 가난함과 궁핍함, 육체의 피로와 질병, 사회적 시련과 역경, 인격적 비천함 등에 빠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 어떤 연유로 당하게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주간'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시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고난주간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잔을 눈앞에 두고 배신까지 당한 예수님의 고뇌, 주님을 몰라보거나 외면했던 사람들이 가했던 수모, 고문이나 다름없던 채찍질과 십자가 형벌의 거친 죽음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 받기에는 참으로 가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럴만한 당위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자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이렇게 그 고난을 되새기고, 왜 자발적으로 힘겨움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르는 신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은 자아를 내려놓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헌신의 길이 눈에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주간이란 시기에 스스로 즐거움보단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가까이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고난주간에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참 은혜롭고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금식이든, 기도든, 선행이든, 삶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지는 각자마다 주님께 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한 바이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200kg이 되는 사람이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나와 운동하던 그 사람을 헬스트레이너가 지켜보다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후로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해, 나름의 의지와 용기를 쥐어 짜내서 노력한 것인데, 가벼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다이어트에도 끝이 있듯이, 고난주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난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절망과 좌절을 물리치고 선교활동에 담대히 매진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잇는 이 땅의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과정에 동참한다면, 그만큼 튼튼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다이어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21, 149 / 430

기도 :

성경 : 출애굽기 17:1-16

제목 :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말아라

1.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1-7>

- 1)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What)
- 2)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함께)하신다. (Why)
<7b>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 3) 광야생활에서 하나님의 동행(함께)을 확신하자 (How)

2.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 <8-16>

- 1)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겼다. (What)
- 2)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 힘을 모아야 한다. (Why)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12>
- 3)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기도해 힘을 모으자 (How)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양, 광야에 서 있네

Hiswill(히즈윌)

요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연약한 자식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사업을 통한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
방향을 잃음으로 인한 결과로 통한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육체의 아픔을 통해 무너져가는 나를 보며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다.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따뜻한사랑방 강춘자 권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53 : 4-6 인도자
3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다함께
143, 14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27 : 11-44 설교자
150 비움사랑방
" 대신 죽음 당하신 이스라엘의 왕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11 다함께
인도자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차현주 / 꽃꽂이 : 김영하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대신 죽음 당하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무죄한 죽음.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예수
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
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11>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석방하려 하였으나, 지도자들의 선
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17-26>

이스라엘의 왕, 대속의 죽음. 내용 중, 두 가지 의문이 생
깁니다. 예수님이 신문과정에서 침묵하신 것 <12-14>과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과 숨을 거두시는 내용 사이에 삽입된 두 강도의 이야
기입니다. <40-43>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모
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먼저 '죄'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필요하다. 죄는 원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얽매
임의 원인이므로 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대속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서울대공원동물원에 다녀오기로 한 수요일에 두 친구가 아파서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인 세 친구가, 모두가 가고 싶어한 동물원에는 다음에 같이 가기로 하고,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벚꽃을 보고 놀이터에서 놀고 오기로 했어요. 동물은 주차장에서 놀이터까지 오가는 길에 아주 살짝만 보았어요. 벚꽃을 보고 좁고 머리에 꽃아도 보았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가지를 주워 티피를 닮은 집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어 보았어요. 놀이터에서 회전무대(뽕뽕이)를 타고 돌리며 놀았어요. 서로 번갈아 가며 돌려주고 선생님 셋을 한꺼번에 태우고 꾸러기 셋이 돌려주기도 했어요. 음악분수도 보았어요. 꾸러기들이 잘 아는 동요에 맞추어 춤추듯 움직이는 분수를 참 열심히 집중해서 보았어요.

chap쌀을 불러 방앗간에서 빵고 학교 주변에서 진달래, 개나리, 제비꽃, 꽃다지, 민들레, 썩을 따서 꽃전을 만들었어요. 꾸러기들이 꽃전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니 예뻐서, 맛있어서, 조물조물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좋은데 무엇보다도 만든 걸 들고 나누어 드리러 갈 때가 좋다고 하네요. 그 작은 꽃전 두어 개를 받고 "행복하다"하는 분들과 참 잘 어울리는 꾸러기들이지요.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초미세먼지가 조금 있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아이들은 소꿉놀이도 하고 부서별 활동 하느라 여기저기에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8일(화) 책엄마가 오셔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모래사장을 조금 옮겼습니다. 동그랗게 벽돌로 테두리를 쌓았습니다. 아직 모래를 넣지 않아 놀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즐겨 노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넘칩니다.

배움과 가르침

9일(수)에 점심 식사 후에 의정부 송산사지에 가서 짧은 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 번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걱정을 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 놀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서 울려 퍼졌는데 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맛난 간식을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1일(금) LTSS에 봄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절기 중 봄에 해당하는 절기를 배웠고, 공동체 안에 있는 봄나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견본(7가지)을 보며 냄새도 맡아보고 이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제로 봄에 먹는 음식도 적어보고 봄 축제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로 봄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봅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개교기념일을 보낸 멋쟁이들의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진정 학교가 개교했음을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저녁에도 쌀쌀함이 조금씩 가시는 것이 체감됩니다. 낮에는 확연히 더워져서, 자꾸만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멋쟁이들이 눈에 띄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멋쟁이들이 연속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본 스케줄에 맞춰 조정했지만, 목사님과 면담하면서 혼자 또는 여럿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동안 따로 기도해 집중했던 경험을 고이 가져갈 보물로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멋쟁이들이 기다리던 서울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공동심화학습에서 좋은 기회를 잡아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를 관람하러 떠난 김에, 꽃이 만발한 남산타워까지 둘러보러 간 것입니다. 연주도 다채롭고 멋졌는데, 점심도 맛있고, 날씨도 참 좋아서 무엇보다 모자란 것이 없는 멋진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멋쟁이들은 전체 회의를 통하여 이미 오전을 금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신앙의 도약과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해봅니다. < 교사 : 이어진 >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11)

산하와 한나가 뭔가를 원하거나 바라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내가 해 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닌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자!” 얼마 뒤 엄마 말이 맞았다고 할 때가 자주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대로 여유로웠지만 아빠의 병으로 인해 엄마만의 힘으로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많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교회와 좋은 학교를 만난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계시는 현재의 삶도 분명 주님의 은혜이리라.

내 삶을 돌아보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직 아들 바라기셨던 내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다닐 수 없었던 학교들을 다니게 되고 교수 대신 차선책으로 입시생들을 가르치며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물론 부모님이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사모라는 이유로 성가대 지휘자가 될 수 없었던 일이 있는 등 나도 많은 것들이 좌절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때도 많아 아쉬운 적이 정말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조금 늦게라도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내게 닥친 어려움조차도... 그리고 아주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내가 필요하면 즉각 응답해 주셨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자랑을 들으면서 난 돈은 없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사람의 삶의 모양은 제 각각이지만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만드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 기대해 본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82장, 183장, 191장

성 경 : 로마서 14장 13~19절

말 씀 : 형제자매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근 '관세 전쟁'이 촉발되어 커다란 경제적 영향이 파도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도 전쟁과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이 내밀어지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며 온갖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들이 그러한 대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1)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 2) 한국 사회에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 3) 미국에 있는 멧쟁이,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 4) 사순절을 보내며 멧쟁이들의 연속기도회 중에 함께 해주시길

<생활공동체 소식 >

봄꽃들이 만개한 공동체 뜰을 보며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나무들이 우거지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고 굴삭기 작업으로 땅도 고르며 봄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동산에 이끼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는 작업이 한창이고 화단에 꽃을 심어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도 정리하고 모래사장도 새로 만들고 교육관 벽 페인트칠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가꾸는 일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